

“아이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

국민의힘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 아동·가족·인구 다룰 부처 신설 임차인, 임대료 3분의1만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른 대안인지에 대해선 “딱 대응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상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될

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감염병 치료·백신·방역, 경제·교육 격차 해소, 신기술·첨단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필수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 주거복지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건설을 공약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서 단일화 찬반론 고개

“단일화 논의 인사 거간꾼”

“대선 승리 위한 국민 명령”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점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격 승리에 대한 확신의 차이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라디오에서 ‘우클릭’을 지속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이상 중도를 대표하지 못한다며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단일화 논의에 균형을 때는 일부 인사들을 ‘거간꾼’으로 부르며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이제 거간꾼들이 활약할 시간”이라며 “지금 상승세를 탄 우리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자신감은 윤 후보의 지지를 추이를 근거로 한다. 자체 조사에서 금방들이 나타났다. 그는 “1월 6일 시행(내부) 조사보다 1월 8일 시행 조사에서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대 지지율이 부산·경남(PK) 지지율보다 조금 높고, 대구·경북(TK) 지지율보다 조금 낮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70%를 돌파하면 20대 전체 지지율도 60%를 넘게 된다”며 “그러면 단일화 필요 없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대선 승리의 필요조건으로 보는 이들도 당내에 적지 않다. 대선 코앞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탄탄하게 10%대를 유지할 경우 단일화 없이도 낙승을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을 근거로 한다.

선대본부의 공식 활동과 무관하게 안 후보 측 관계자와 물밑 접촉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 정부론도 설익은 형태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 지지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일화 논의는 필연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단일화라는 게 국민의 명령 아닌가”라며 “민심의 압박을 두 후보 모두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단일화 관심없다...20% 넘는 3당 후보, DJ와 나뉘”

안철수 한국기자협회 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의 단일화 원칙,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조건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공동정부론에 대해서 “공동 정부가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공동정부)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개진 선례를 보았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권

교체를 하고 그 내각을 국민통합 내각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제가(2017년) 대선에서 3위를 했습니다만, 3당 후보가 대선에서 20%를 넘게 받은 것은 지난 70년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저밖에 없다”라고도 언급했다.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교체의 실현”이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며, 정권교체는 그 수단”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쌍 포플리즘”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따라 부사관 월급, 장교 월급, 장군 월급도 높이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다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번 쏘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회 새해 첫 본회의 11일 오후 국회에서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 등이 처리됐다. /연합뉴스

민주, “안철수, MB 아바타인가?” 비판

윤-안 단일화론도 견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 후보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 “독자적인 역량 아니다. 발판이 아니라 반사체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강 의원은 “MB 아바타인가? 그 다음에 갖출수도 대표되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광장회 회화화한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가) 국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진 유능하고 실용적이고 준

비전 사람이라는 이미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와 비전은 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조사는 15%, 적은 데는 12% 이렇게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우 (지지자율) 70% 내외에서 (지지 후보를) 안 바꾼다는 대답을 하는 반면 안 후보 경우 그 비율이 50% 밑도는 그런 형국”이라며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정석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한 단일화는 딱 한 번 있었다”며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노무현 후보가 3등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단일화에 나섰던 것이어서 감동의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며 “과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측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단일화에 나설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 역시 자신으로 단일화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또 철수하게 되는 상황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민주, 열린민주당과 합당 당원투표 가결

83.69% 찬성...12일 안건 의결

더불어민주당 관리위원회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투표가 지난 10일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나흘간 온라인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내·외 당원 총 83만1434명 중 26만5254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에서 22만1979명(83.6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사를 표한 당원은 4만3275명(16.31%)이었다. 앞서 지난달 29~30일 먼저 진행된 열린민주

당의 더불어민주당 합당 투표는 72.54% 찬성률로 가결된 상태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 안건을 의결하고, 열린민주당과 협의해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을 중심으로 생긴 비례대표 정당이다. 두 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여권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합당을 추진, 지난달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당 대 통합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 특강

99% 적중률...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시!!

장 소 3층 김부동산멘토스쿨(힐스테이트 3단지 앞)
일 시 2022. 1. 13(목), 오후 2시 / 7시
문의전화 010-5632-5209(사전예약)

※세미나 참석하신분은 1:1투자 상담시 상담료 무료

강/의/내/용

1강의 광주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
 - 꼭 알아야 할 광주 중요지역 분석
 - 3천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캠프투어
 - 수익형 부동산의 과학적 투자 가치 분석 기법

2강의 “항공 개발지 토지” 성공 투자법 공개
 - 광주/전남 지역 내외 “최고 가치” 매물 대 공개
 -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필승 농지 투자법 대 공개
 - 소액 토지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공개
 - 전국 지역 예타면제사업 토지 집중분석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MTN아바타-김영표의 비조정보소
 (2017년 우수기업 선정 방송)
 (2017년 스포츠 서울 배산 한국인 선정)
 (현) 김부동산멘토스쿨 대표
 (현) 김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LBA합동중개사
 (현) 각종 강연회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300회 이상 강의
 (현) 로데오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발행 개재중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대가,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타라브룸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대가,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전 남향 교통도시 지정안접
 대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9십만원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달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용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길 건너편 동평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 및 주권제출공고)
 저성기업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천송산업(이하 “을”)은(는) 2022년 1월 11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2일
 “갑” 저성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대면리 전기로 89, 2층
 대표이사 박현욱
 “을” 주식회사 천송산업
 전라남도 곡성군 일원면 매월매정길 4
 대표이사 서은희

분할합병공고

2022년 1월 11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천지인에너지 (이하 “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분할된부분을 주식회사 풍성(이하 “을”)과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제외계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2일
 “갑” 주식회사 천지인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313, 3층 (오차동)
 대표이사 이광수
 “을” 주식회사 풍성
 전라남도 나주시 영하로 2305 (부곡동)
 대표이사 최희정

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70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지 국 안 내

복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